

TEAM JONY 선교 보고서

2026년 6월

Bible Mission Services

말레이시아 미전도 종족 가운데 신실하게 씨를 뿌리다

선교 파트너: 조니 령(Jony Leong) 전도사 | 사역지: 말레이시아 & 동남아시아 | 중점: Heritage Café, Mission Hub 및 제자 배가 훈련

1. 감사의 나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 마태복음 28:19

2026년 6월은 캄퐁과 교회와 국경을 넘나들며 신실하게 씨를 뿌린 한 달이었습니다.

조호르(Johor)로 떠난 8일간의 선교 여행과 캄퐁 꾸알라생카(Sengka)의 자쿰족 성도들을 방문해 가르친 일, 승아이시푹(Siput)에서 80명의 성도와 함께한 아버지의 날 축하 모임, 그리고 빠따니 침례교회에서 지상명령을 전할 수 있었던 열린 문에 감사드립니다 (승아이 빠따니(Sungai Petani), 꼬다(Kedah) 소재). 이번 달에는 D., C., Q., W.J., KD 다섯 명의 새로운 생명이 그리스도께 돌아왔습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2. 사역 결과 — 2026년 6월

지표	수치	세부 내용
Zúme 집중 훈련	1	바뚜 빠햇(Batu Pahat)에서 8시간 집중훈련 — 25명 훈련
설교/나눔 사역	5	바뚜 빠햇, 꾸알라생카, 승아이시푹, 빠따니 침례교회, 조지타운
Zúme 훈련반: 진행 중/신규 시작	3	중국어(신규), 광둥어(진행 중), 영어(진행 중)
복음 대화(현장)	25	일대일 및 소그룹 복음 나눔
새신자/신앙 고백	5	D., C., Q., W.J., KD
이번 달 접촉한 미전도 종족	확인 1건	자쿰족 (꾸알라생카) — 빠따니 침례교회를 통한 태국 남부 아웃리치 포함
이번 달 협력한 교회	4	바뚜 빠햇, 승아이시푹, 승아이빠따니(꼬다)의 현지 협력 교회

주요 사역

- 조호르 선교 여행 (6월 1일~8일): 바뚜 빠햇과 주변 캄퐁 전역에서 훈련, 설교, 가정교회 방문으로 채워진 한 주간의 현장 사역이었습니다.

Jony & Soojin | 말레이시아와 동남아시아의 미전도 종족에게 다가가다

- **Zúme 집중훈련, 바뚜 빠핫:** 8시간 제자훈련 집중과정을 통해 25명이 훈련받았습니다. 후속 모임이 지금 형성되고 있습니다.
- **캄퐁 꾸알라생카 (자쿤족 미전도종족), 6월 7일:** 자쿤족 성도들과 새 친구들에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 꾸알라생카 미전도종족 관계의 지속되는 열매입니다.
- **지역 교회 방문, 바뚜 빠핫:** 회중에게 선교와 제자훈련에 대해 나누며, 앞으로 조호르에서 있을 Zúme 훈련을 위한 기초를 놓았습니다.
- **송아이시퐁 — 아버지의 날, 6월:** 지역 협력 교회 성도 80명과 함께한 아버지의 날 만찬 모임에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 **빠따니 침례교회, 6월 20일:** 지상명령을 전하며 나누었습니다 — 태국 남부 미전도종족 통로를 향한 열린 문입니다.
- **5명 신앙 고백:** D., C., Q., W.J., KD가 이번 달 그리스도께 돌아왔습니다.

기도 제목

- 바뚜 빠핫에서 새로 훈련받은 25명의 성도들이 건강한 3/3 그룹을 이루고 배가를 시작하도록.
- D., C., Q., W.J., KD가 그리스도 안에서 내딛는 첫걸음이 깊이 뿌리내리도록.
- 빠따니 침례교회와 태국 남부 국경 전역에 지속적인 은혜와 열린 문이 있도록.
- 꾸알라생카의 자쿤족 성도들이 보호받고 성장하며, 자기 민족 가운데 제자를 배가시키도록.

3. Heritage Café와 Mission Hub

저희 Heritage Café와 Mission Hub는 지역사회 안에서 복음의 조용한 통로로 계속 쓰임받고 있습니다. 6월에는 1,200명의 방문객을 맞이하고 섬겼습니다 — 커피를 위해, 대화를 위해 오신 분들도 있었고, 변화된 사람이 되어 떠난 분들도 있었습니다.

지표	수치	세부 내용
방문객 수	1,200	Heritage Café와 Mission Hub에서 맞이한 방문객
신앙 및 인생관 대화	120	방문객과 나눈 신앙 관련 주제
복음 대화(Hub)	25	카페 대화를 통한 직접적인 복음 전달
결신자 수(Hub)	5	영접 기도를 드린 방문객

4. 각 훈련반 소식

Zúme 제자훈련은 현재 네 개 언어로 동시에 진행되고 있으며, 각각 성장하는 현지 리더십 네트워크가 이끌고 있습니다.

Zúme 중국어반 — 신규 개설 (6월 16일 시작)

- 총 14명 (중국 9명, 말레이시아 5명).

- 리더: So., Jo.

Zúme 광동어반 — 진행 중

- 현재 35명이 훈련받고 있습니다.
- 리더: Dr. L., A., M., E.C.

Zúme 영어반 — 진행 중

- 3명이 지역 카페에서 대면으로 모이고 있습니다.
- 리더: Em., Cr., Mt.

Zúme 말레이어반 — 리더십 네트워크

- 리더: K., Sa., Z., B.
- 빠락(Perak)의 캄파르(Kampar)와 울루 캄파르(Ulu Kampar)에서 25명의 리더와 멤버를 돌보고 있습니다.

5. 기도 제목 / 다음 단계

다음 단계

- 바뚜 빠햇에서 새로 훈련받은 25명의 리더를 후속 관리하며 3/3 그룹 형성을 시작합니다.
- 새신자 5명(D., C., Q., W.J., KD)을 제자화하며 믿음의 첫걸음을 세워갑니다.
- 중국어반(중국+말레이시아)이 첫 완전한 과정을 마칠 수 있도록 계속 이끌어갑니다.
- 태국 남부 미전도종족을 향한 지속적인 아웃리치를 위해 빠따니 침례교회와 다음 단계를 모색합니다.
- 2026년 10월을 향해 인도네시아(메단) 파송을 위한 기초 작업을 계속 준비합니다.

기도 제목

- 조호르, 빠락, 태국 국경 지역 전역에 열린 문이 계속되도록.
- 네 개 언어권 리더십 네트워크가 훈련반을 이끌어가는 가운데 인내와 하나됨을 누리도록.
- Heritage Café와 Mission Hub를 꾸준히 찾는 방문객들의 대화가 변화된 삶으로 이어지도록.
- 조니 령 전도사의 지속되는 국경 간 사역 여정에 힘과 보호가 함께하도록.

맺음말

2026년 6월은 저희를 경외함으로 채웠습니다. 꾸알라생카의 캄퐁 교실에서부터, 숭아이빠따니의 교회 강단을 거쳐, 태국 국경을 향해서, 그리고 저희 Mission Hub에서 나눈 1,200번의 커피 대화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은 저희가 걸어 들어갈 수 있는 속도보다 더 빠르게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25명의 새로운 리더가 훈련받았습니다. 다섯 명의 새로운 친구가 예수님께 삶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네 개 언어와 하나의 카페 카운터를 넘어, 평범한 사람들이 계속해서 제자를 삼는 제자가 되기를 선택하고 있습니다.

Jony & Soojin | 말레이시아와 동남아시아의 미전도 종족에게 다가가다
기도와 헌신과 동행에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은 모이는 모든 모임, 응답받는 모든 기도, 예수님의 사랑을 만나는 모든 영혼의 소중한 한 부분입니다.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 에베소서 3:20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조니 령 전도사 | Bible Mission Services Heritage Café & Mission Hub, 페낭 | 2026년 6월

6. 함께 동역하기

기도와 참여와 헌신을 통해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함께 세워가시길 겸손히 초청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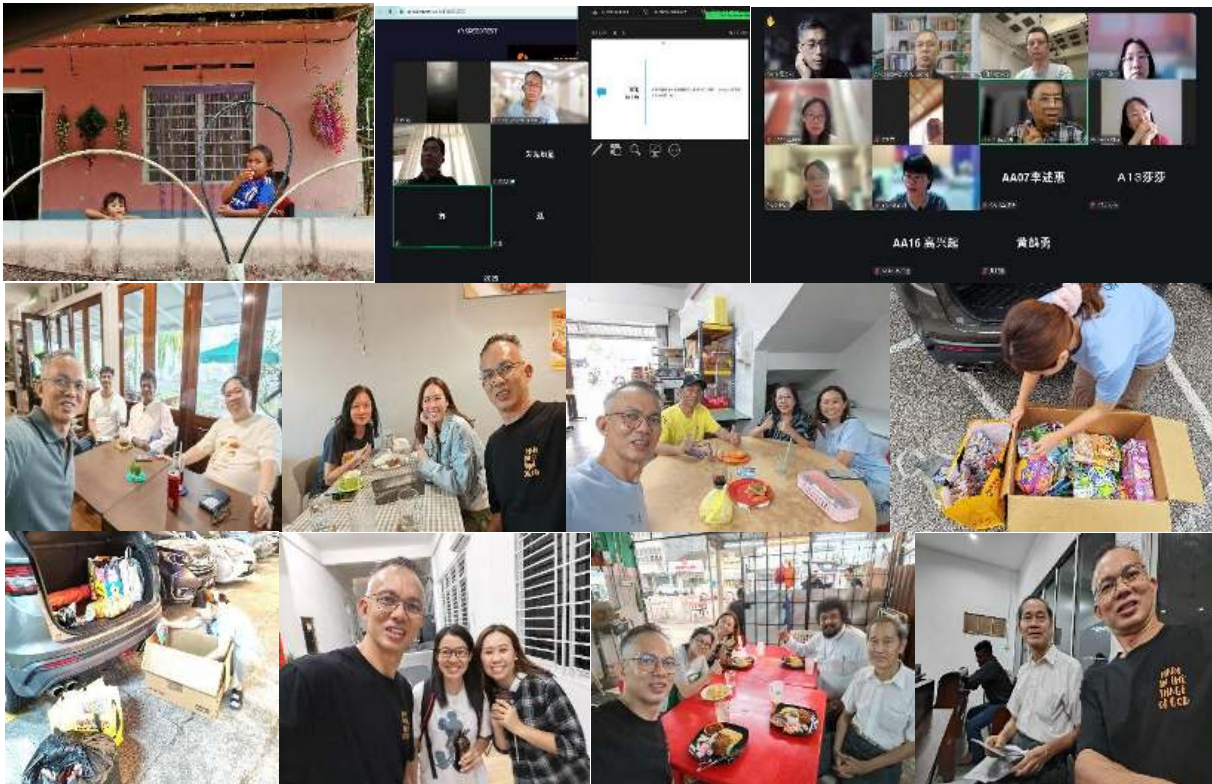
-  **기도** — 저희 리더들과 새신자들, 그리고 열린 문을 위해 중보해 주세요.
-  **참여** — Mission Hub 자원봉사팀에 합류하시거나 저희 제자훈련 과정을 통해 준비되세요.
-  **헌신** — 농촌 지역과 다가오는 선교 여행을 위한 여비, 훈련, 현장 비용을 후원해 주세요.

은행: Maybank | Bible Mission Services | 507031900273

PayPal: aibiblemission@gmail.com | 용도: "6월 선교"

Jony & Soojin | Bible Mission Services | 2026년 6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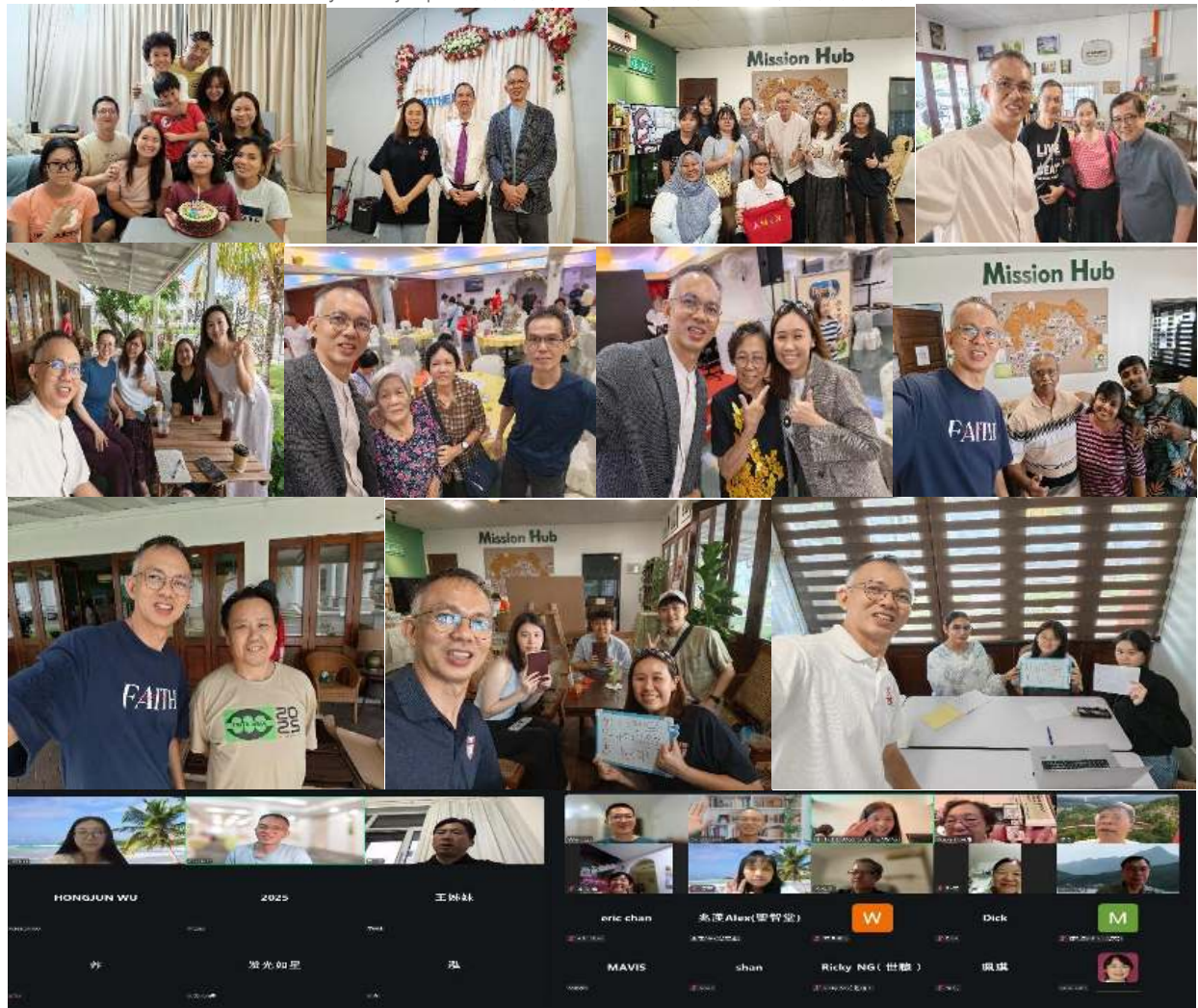
보고서 작성: Jony & Soojin | aibiblemission.com



Jony & Soojin | 말레이시아와 동남아시아의 미전도 종족에게 다가가다



Jony & Soojin | 말레이시아와 동남아시아의 미전도 종족에게 다가가다



Jony & Soojin | 말레이시아와 동남아시아의 미전도 종족에게 다가가다



Jony & Soojin | 말레이시아와 동남아시아의 미전도 종족에게 다가가다



Jony & Soojin | 말레이시아와 동남아시아의 미전도 종족에게 다가가다

